

조선  
우루몽  
권지일

서  
신  
문  
관  
말  
형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44

1912-初  
1916再版



임수심원

조선  
유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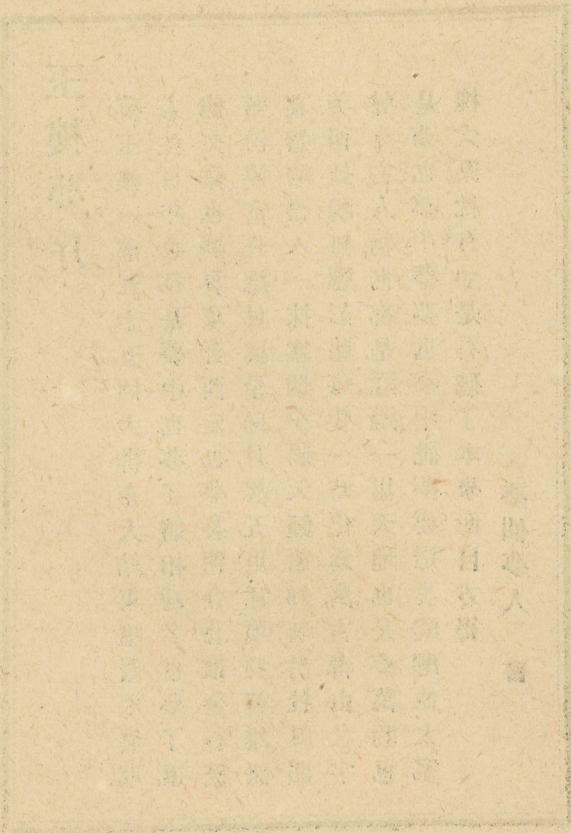
조선유리문



### 玉樓夢序

夢玉樓一部五十五回大排布大結束噫假耶真耶  
人生百年也都是夢中也夢了將相功名也夢了道  
德文章也夢裏東奔西走也夢裏朝合暮散金谷繁  
華汾陽富貴總付與星稀月落五更鍾項羽英雄諸  
葛智略盡入一抹寒烟夕陽天鍾蕭知音呂杜風韻  
美西施醜無鹽彭祖殤生一時化爲萬古青山杜宇  
聲今古人物也都是遽遽一場天地也是夢萬物也  
是夢也夢中夢夢也夢中說夢要這裏醒醒他大家  
槐穴梁枕有如是看破了本來面目方得





옥루몽 권지일 목록

玉樓夢卷之一目錄

데일회 : : : : : (一)

문창성군이빅옥루에드들구경하고  
관음보살이 남던문에 씻을헛치다  
文昌玩月白玉樓  
觀音散花南天門

데이회 : : : : : (二)

허부인이봄에옥련봉에놀고  
양공지길에 툄림익을맛나다  
許夫人春遊玉蓮洞  
楊公子路逢綠林客

데삼회 : : : : : (三)

로패항주에서청루를디답고  
슈지간관에서홍낭을맛나다  
老婆杭州答青樓  
秀才客館遇紅娘

데스회 : : : : : (四)

원앙침우에운우를쌔고  
연로딩압혜양류를씩다  
鵲駕枕上夢雲雨  
鷺鷥亭前折楊柳

데오회 : : : : : (五)



경도회에 당지 풍파를 나르기고  
전당호에 여러 기성이 떠러진 뜻을 올다

競渡戲蕩子起風波  
錢塘湖諸妓泣落花

데륙회

강남홍이 몸을 박은 동애의 탁하고  
양창곡이 칙문을 짓신 연애의 답하고

江南紅托身白雲洞  
楊昌曲對策紫宸殿

데철회

윤상세 동상에 가량을 맛고  
양한림이 강주에서 선상을 맛나다

尹尙書東床迎佳壻  
楊翰林江州遇仙娘

데팔회

오경벽 성산에 옥덕을 불고  
십년 청루에 붉은 덤을 놀니다

五更碧城吹玉笛  
十年青樓驚紅點

데구회

황씨의 혼인을 덩흠이 던지 주미하고  
남만을 철시원 쉬출전하고

定黃婚天子主媒  
征南蠻元帥出戰

데십회

홍흔 씨를 헝하야 잔비별당에 들내고  
요사흔 계교를 짓되하야로 패단약을 팔다

行凶謀奸婢闌別堂  
資妖計老婆賣丹藥

데십일회

원쉬혹 풍산에 대첩하고  
와룡이 반사곡에 현성하고

元帥大捷黑風山  
臥龍顯聖盤蛇谷

데십이회

동학을 일코나탁이 군사를 청하고  
도스를 천거하고운룡이 산에 도라가다

失洞壑那吒請軍  
薦道士雲龍還山

데십삼회

만왕을 구원하랴홍낭이 산에 나리고  
진법을 싸화원쉬 군사를 물니다

救蠻王紅娘下山  
鬪陣法元帥退軍

데십사회

옥룡쇼는 조웅틀로 슈창하고

玉笛酬唱雌雄律



구슬거문고논산슈줄이단속한다

瑤琴斷續山水絃

서

序

백옥루그림

白玉樓圖

양창곡화상

楊昌曲像

옥루몽권지일 목록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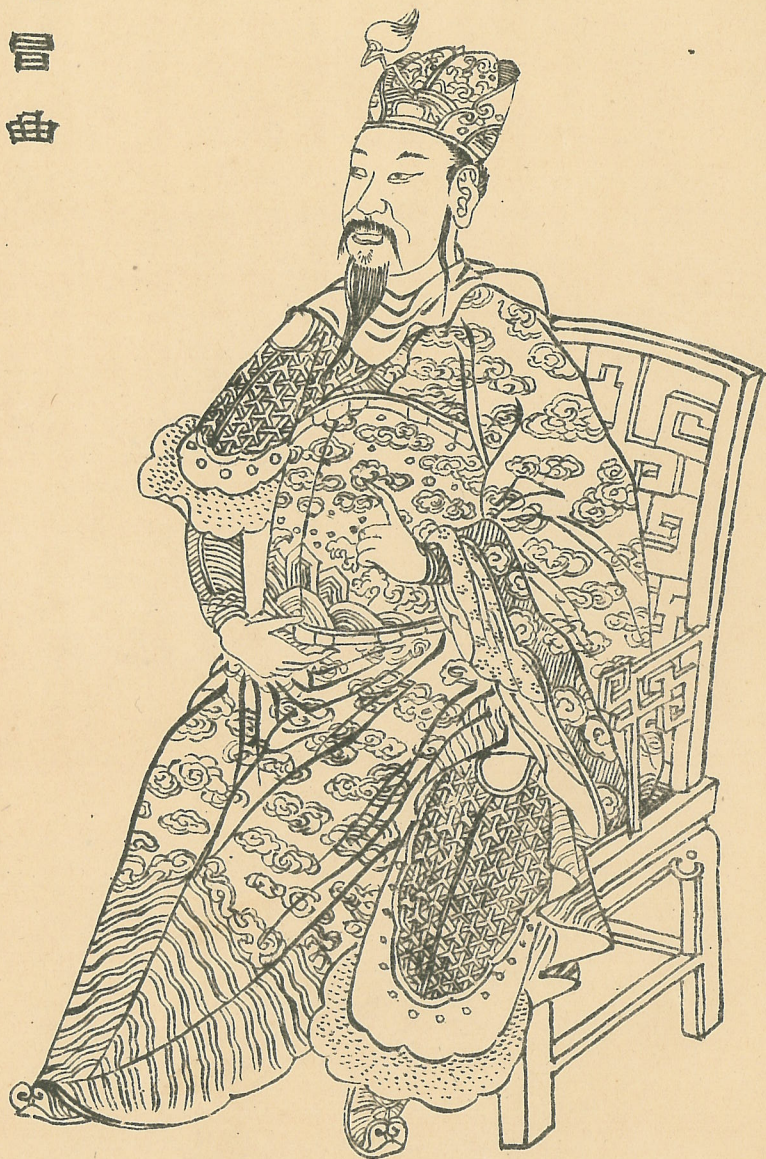


文昌玩月白玉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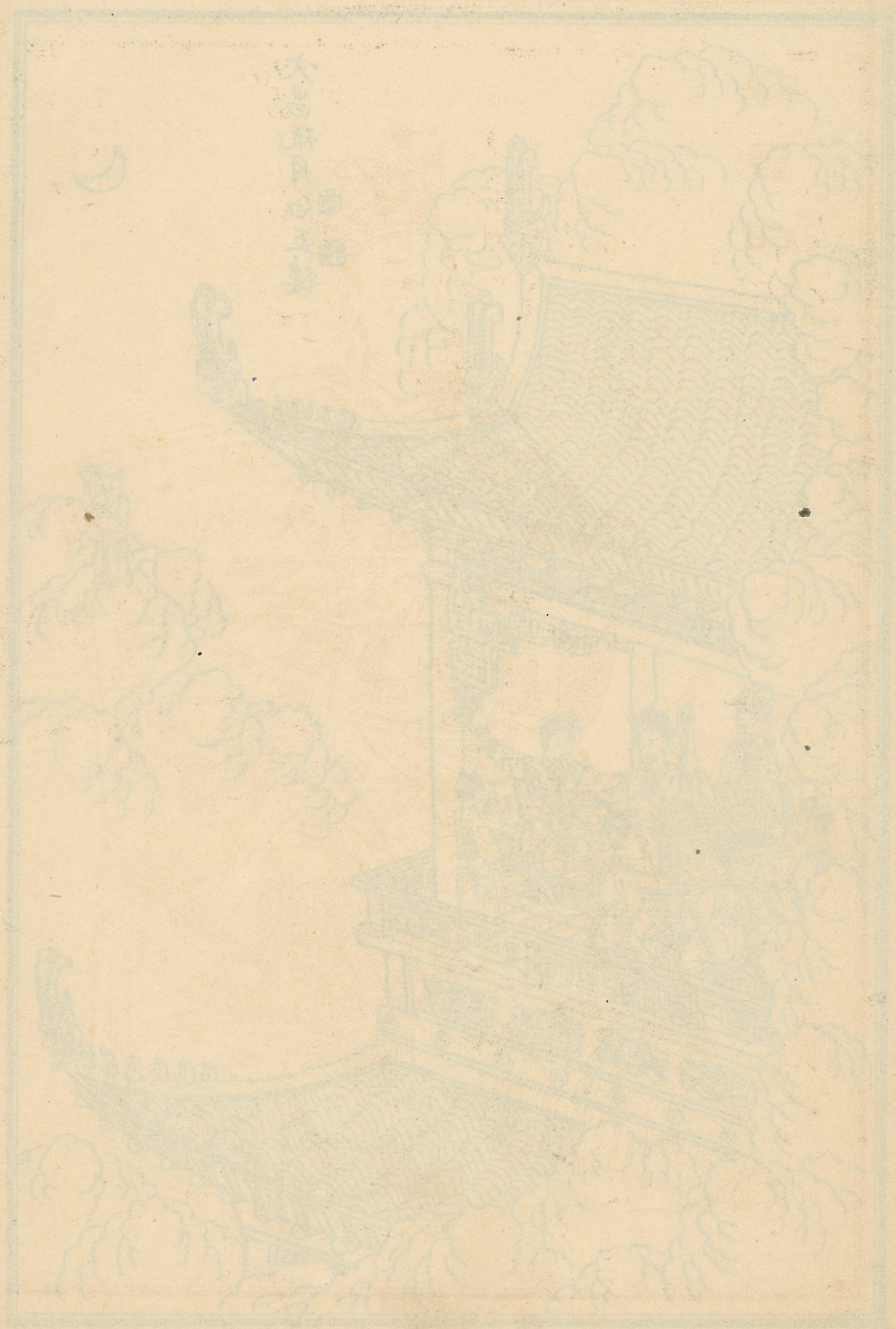
문창이 들을 옥루에 구경하



楊  
冒  
曲



楊  
冒  
曲





옥루몽권지일

玉樓夢卷之一

데일회

문창성군이빅옥루에들을구경하고  
관음보살이남련문에뜻을헛치다

文昌玩月白玉樓  
觀音散花南天門

玉京、白  
玉樓、兜  
率宮、  
廣寒殿  
玉帝

文昌星君

화설옥경십이루에그하나는빅옥루니제되굉길하고경치동창하야서호로두솔궁을  
니웃고동으로광한연을바라보니룩창주호에서괴어리엿고취와홍령이벽공에소  
삿스니상청루관중데일이라옥데일죽옥루를중슈하고모든선관을다리샤대연으  
로락성하실시란심봉관은운쇼에료량하며우의예상은풍편에표요하니옥대파리빅  
에류하주를부어특별이문창성군을주시며빅옥루시를지으라하시니문창이취흥을  
써여슈불딩필하고삼장시를알외니시에왈

其一

기일

珠露金飈玉界秋 구슬이슬과금바람옥계가을에  
紫皇高宴五雲樓 조황이높히오운루에잔치하시다



霓裳一曲天風起  
吹散仙香滿十州  
신선향기를 불어 흩히 십주에 그득하도다

其二 기이

乘鸞夜入紫微城  
桂月光搖白玉京  
별과 별이 공중에 그득하되 바람이 슬이 희었스니  
綠雲時下步虛聲  
푸른 구름에 때로 보히 성이 나리더라

其三 기삼

雲裏青龍玉絡頭  
平明騎出向丹邱  
평명에 타고 나와 단구를 향하도다  
閑從壁戶窺人世  
한가히 구슬 지계를 조차 사름 세상을 엿보니  
一點秋烟辨九州  
한점 가을 연기에 구주를 분변하깃도다

옥데보시고 대희청찬하사 루상에 샅이라하시며 저삼층호시더니 홀연 옥식이 불열하  
사태을 진군을 도라보시며 월문창의 시극히 아름다오나 데삼장에 잠간 진세인연이 있  
스니 문창은 연쇼망중헌선관이라나 의스랑하노배니 엿지 앗쳐롭지 아니리오 진군이  
주왈 근일 문창의 미간에 황조그마득하야 부귀귀상을 띄엿사오니 잠간 진세에 적강하  
야 겁기를 쇼멸케함이 도홀가하노이다 옥데미쇼덤두하시고 연석을 파호후령쇼보던

太乙眞君

靈霄寶殿

北海龍王

雲孫娘娘

牽牛玉宇

月宮姮娥

帝旁玉女

紅鸞星  
織女娘娘

으로드러가실시문창드러왈 금야월식이 아름다을지니 옥루에 머므러완월하교도라  
오라문창이 성지를 밧조와 보가를 지송하교다 시옥루에 오르니 초시는 추철월가절이  
라금풍은 쇼슬하교은하는 경경하되 만리벽공에 덤운이 청정하되니 홀연 동북으로 일  
진후운이 나려나며 북극룡왕이 퇴거를 모라루하로지나거늘 문창이 대로왈 내바야호  
로완월하노되 룡이 엿지 구름을 날히여월식을 그리는 룡왕이 주왈 금일은 칠월가  
절이라운손낭이 권우에 개하하실시스히룡왕이 세거하다가는 이다문창이 미쇼  
하교즉시 구름을 거두라홀대이 옥고옥위정영하며 백회공하되 반륜신월이 두우간  
에비회하니 문창이 불승취홍하야란간을 의지하야 망월하며 싱각왈 옥경이 비록도타  
하나니 모청정담박하니 우리월궁하야는 외로이 광한던을 지히여 엿지 무료홀근심이  
업스리오하되니 홀연 루하에 수레소리은은하며 선동이 보왈 데방옥네 오신다하거늘  
문창이의아왈 옥녀는 옥데궁중의 피서잇는 재라엇지 이곳에 나르노고하되니 아이오  
옥네루에 올라문창과 빈주지례로 좌영후글으되 옥데문창의 취함을 념려하사첩으로  
하여금반도륙키와 옥익일호를 밧드려금야옥루에완월히정함을 도으시디이다문창  
이비슈하며 옥녀를보니 성관월패로거지단아하야 심분청정하교칠분아릿다와월광  
을다도노듯하거늘 문창이 쇼왈 옥네청춘지년에 심궁에 처하야울적하심이 만홀지라  
이제성지를 밧조와 초쳐에나르시니 잠간 머므사소요산회하교도라가쇼셔 옥네미쇼  
왈첩이오다가홍란성을 밧나니 적녀랑랑의가기를 처하하라가며 귀로에 초쳐로괴회



齊天仙女

靈山會、  
世尊、  
摩訶池

강앗스니홍란은풍류다지흔선관이라문창의금야소흥을돕샤을가하느이다언미필  
에일위선네취운을드고셔흐로오니즈새이봄에제천선네라슈중에옥련화흔송이를  
들고표연이루하로지나가니문창이불너왈제련선네어티로가는노선네운거를머  
므르고디왈첩이령산회에갓다가제존의설법을듯고귀로에마하지를지나더니옥련  
해성기하야아름답기흔가지를색거가지고두술공으로가느이다문창이쇼왈그뜻이  
장괴이하니잠간구경코져하노라선네웃고슈중련화를공중에더진대문창이집어  
보고미미히우으며즉시글두귀를지어씻넋시에써도로공중에더지니시에왈

可憐玉蓮花 가히어옛부다옥련화는

淸淨摩訶池 맑고정흔마하지로다

尙得春風意 오히려봄바람뜻을어더

任君折一枝 그디를맞겨흔가지를씩것도다

선네련화를도로바다들고은근이문창을디하야샤례하느빚이잇더니홀연동으로일  
위선네처봉을멍에하야표홀이니르거늘보니이에련요성이라크게소리왈제련선네  
느임도흔선네라엇지남포의련을키고강변의패물그르느풍정을호촉하느노언필에  
선녀의가진련화를아셔쓴글을즈세이보고양앙불락하야팅쇼왈이뜻과이글이런상  
의무쌍흔보니라내맛당히옥데색드려구경하시게하리라선네슈습하야얼골이붉으  
며당황하더니남북으로또일위선네적란을드고첼보관을쓰고예상하의로헤힐흔괴

天曜星  
南浦

麻姑仙子

王方平

西王母

周穆王

正考父

銀河水

鳥鵲橋

桃花星

상파영발흔풍취불문가지위홍란성이라랑랑이소리왈량위선낭은무엇을다도느노  
련요성이웃고제련선녀의문창이글귀로은근이슈작하야상계의청정흔규모를괴손  
흙을말흔대홍란이쇼왈첩은드르니마고선즈느년고덕쇼하나왕방평을디하야척미  
상희하고셔왕모느위존망중하나주목왕을맞나빅운요를화답하니이제제련선녀의  
문창에깨끗더지며문창의글귀로슈작흙이무엇이불가하리오또문창은중대흔선관  
이어늘낭이엇지정고보에게비하리오인하야련요의가진련화를탈취하야즈괴두상  
에씻고우슈로제련의손을잡으며좌슈로련요의소매를잇그러왈금야월식이장아  
름다오니옥루에올나완월이나하샤이다량낭이홍란을조차옥루에니르니문창과옥  
네마져좌영홀식문창은데일위에안고옥녀는데이위오련요는데삼위오홍란성은데  
스위오제련선네는데오위에안져차례로좌영홀애문창이쇼왈월식이어느밤이요치  
아니리오마느제위선낭이이곳치모힐은진실로괴이흔인연인가하노라홍란이쇼왈  
이느다옥데의주신배오문창의청복이라다만첩이그스이일장풍파를지내엇느이다  
옥네경왈무슴일이노홍란이다시미쇼왈첩이아싸운손을치하하노라오다가은하  
슈를지낼시오작이드리를일위장괴이흔지라첩이쇼년지심으로그드리를조차건  
너더니홀연복히룡왕이제거하노라가는소리에일진오작이놀나흔히지니첩이거  
의슈중첩흔이될변하니이다문창이쇼왈오작교는우녀의인연밋느드리라홍란이무  
단이건넌애조물이잠간회룡흙이라일채대쇼하노라홍란이또쇼왈첩이아싸도화성



麻姑仙子 天台山  
君山  
東海、桑田  
蒼鵝星 酒星、酒府  
天駟星、北斗星

을맛나한가지움을말호죽종시년쇼성군이라광한면의우의무를구경호러갓스니회  
로에이곳을지낼지라청호야긋치늘미도홀가호니이다언미필에일위선네조하거를  
드고은금상을납고일골이번화호야일지도해춘풍에반기호듯호니이노도화성이라  
홍란이웃고루두에나서며놓호소리왈도화성은도라움이엇지더디노이곳에데방옥  
녀제련선녀연요성이계시니한가지완월홀이엇호노도화성이미쇼호고조하거를  
돌녀옥루에올나데륙위에안즈니모도여섯선관이라문창이숙취몽롱호야과리채를  
두루며쇼알빅옥루는던상데일루관이오추철월은일년중가절이라내옥데의명을밧  
조와량쇼명월을독락홀가호앗더니제낭과히후상봉호니이또호쉽지아닌승회라다  
만흠이잇스니술이업서엇지호리오홍란이쇼왈첩이일전마고선조를맛나드르니군  
산의천일취재로니어아름답다호니일기시녀를보내면어더을가호니이다옥네웃고  
조그시녀를명호야런리산에보내니마괴보고경알데방옥녀는녀선중지죄놓호야일  
죽술을구호심이업더니그장괴이호도다이에마되병에두말술을보내니홍란이랑량  
이척알래산호은이동히변호야상던됨을세번보앗스나그인척지심은의구호도다사  
쇼호두주를무엇호리오첩이드르니향일옥데군던광악을드르시다가잠간취호야창  
순성이작란홀을알호시고취호호야썬성을가두고술을밧지아니시니반드시썬성부  
에저축술이바다긋홀지라문창이구호시면어더을가호니이다문창이응락호고죽  
시선등을명호야보내니아이오런스성이술을싣고복두성이잔을써서옥빅금장파롱

釋迦世尊 靈山道場 蓮花臺  
和尙 觀音菩薩

포북적이일시썬성을일음에만채대취라홍란이아미를쓸고취파를홀니며옥슈를들  
어들을그큰취왈더일룬명월은런상인잔이다름이업느니비록상계광음이장구호나  
대라용한의겁진이한번나면호야쌍빈에썬상이재로올지라긋호여고담호선술을놓  
호래호야이긋호밤을무료호보내리오만일초석에대빅을스양호는자는별이잇스리  
라문창이대쇼호고취호호도도호야친히잔을들어초례로원호니일채취취호야륙선  
이각각란잔을베이고홀씩잠들매옥산이조도호고화영이산란이라교결호선월은첩  
아에돌녀잇고청량호풍로는웃기호그득호니거연이옥루풍월이변호야호중던디된  
지라다만시녀선동이란두에시립호고취봉청란이루하에비회호더라초시석가세존  
이령산도장을파호시고련화디에안즈샤여려데조와불법을강론호실시홀연마하지  
맛호화상이보왈마하지의열송이옥련화는십방을응호야바야호로란기호앗더니근  
일한송이잔곳이업느이다세존이침음량구에관음보살을도라보샤왈이뜻이런다정  
화와일월정기를씨여잇는바에이상호향내와조호호광취십방에밧칠지라보살은그  
잔곳을숨혀보라보살이합장썬명호고죽시구름을드고공중에올나우호로십이중련  
을우러러보며아래로삼천세계를굽어숨히더니옥경십이루에한줄기이상호광취잇  
노지라보살이그광취를스라빅옥루에나르니비반이랑자호고광취교착호니륙선이  
일시대취호야란잔을벼호고동되셔도호중한송이련화좌상에노헛거늘보살이혜  
안을홀녀한번숨혀보고미쇼호며련화를집어손에들고루에느려다시구름을드고령



산에도라와세존색련화를드리고옥루륙선이취도함을고하니세존이련화를바다님  
시우에쓰글을보시고미쇼하시며경문을넘는신대엽상의쓰글지났났히랍상에떠러  
져스무낫구슬이되거늘세존이다시륜회진언을외오시며파리채를드러좌랍을치신  
대이십기구슬이쌍쌍이합하야두번변환해오기구슬이되야광치동명호지라세존이  
구슬과련화를거두어압해노호시고대즈대비하야적연이입정하시니관음이미쇼하  
고즉시글한귀를지어화답하니그게에알

妙哉蓮花 묘하다련화는

元有妙法 원리묘법이잇도다

並藉春風 봄바람에씩지를아올넛스니

是我結習 이나의미즘이로다

츠시세존이글을보시고칭찬왈선지라불음이여다시한마디로대중을효유하랴보살  
이지비하고련화를드르치며설법왈대련회비록본질이청정하오나또호련디잔출괴  
를어더잠간륜회중호탕대겁을씩엇스니중성에비유호죽련성이허령하나진근이중  
탁하야오욕철정을임의로못하고철계십월에즈취함又혼지라우리불법이광대무량  
하야정근을말미암아인연을말슴하고인연을말미암아구성을세듯게하느니대개사  
람의심정은련화又고정육은출풍이라출풍이아닌즉련회뒤지못하며정육이업슨즉  
심성을세듯기어려우니모든대중과선남선녀는법심을드초고법안을뵈려련화의이

발하고출풍이미진호곳을보라련디청정하고강산이허적하니이날은묘법이오이날  
은성각이라하느니라츠시세존이보살의설법을드르시고대회왈선지라불설이여누  
능히이뜻을가져더련화와구슬로결습을지으리오아란이합장고왈대지비록법력이  
업스오나원컨대더련화를가지고변하야넛시마다스십팔만대장경을써서세계중성  
의총명지력으로법계에도라오게하리이다세존이미쇼부답하시니가섭이또합장고  
왈대지비록불민하오나원컨대더구슬을가져변하야장명등이되야세계중성의륙근  
진을일월又치빛하여청정광대호덕로도도라오게하리이다세존이또미쇼무언하신대  
보살이다시나더련화디압해나아가세존색고왈팔진지미를먹은즉속속의함담을알  
고문슈지복을넘은즉포박의검소함을세듯느니대지련화와구슬을가져일중인연을  
지어천추만세의취몽불성으로구성을세드라불가상승에청정광대함을알게하리이  
다세존이대회하야답상에노한일지련화와오과명슈를집어보살을주시니보살이합  
장지비하고보리슈를메이며금루가를넘고좌슈에오과구슬을들며우슈에일지련화  
를가져남던문에올나대천도를굽어보니망망고히에육광이접련하고도도홍진에취  
몽이깊혔거늘보살이미쇼하고련화와구슬을일시에공중을향하야더지니구슬은스  
방에호터져거쳐를보지못하고다만육련화일지빅운간에늘나하계에떠려져일좌명  
산이되얏스니아지못케라보살의법력이장츠무슴인연을지어엇지하려함인고하회  
를보라



데이회

허부인이 봄에 옥련봉에 놀고  
양공지길에 룡림길을 만나다

許夫人春遊玉蓮洞  
楊公子路逢綠林客

각설 남방에 일좌명산이잇스니 주회오백여 리 오동기 일만 팔천 장이라 석석이 빽옥을  
묵근 듯 멀리 서면 라 본즉 혼줄기 옥련해 평디에 펴 뒀다야 닐컨는 재옥련봉이라 하더라  
중고에 일기도 서지 내다가 봉두에 올라 산세를 보고 차탄왈 미지라 초산이여 돌연 혼형  
세임의 리룡이 업고 청속 혼기운을 온전히 바닷스니 초노우공 구주의 도산도 슈흔 피아  
니라 불가소위 비리봉이니 불출삼백년에 득출 혼인저나 매 청명 지기를 응하리라 하더라  
니 그 후 슈백년에 슈삼촌 락이 모히고 촌중에 일위 처시잇스니 성은 양이 오명은 현이라  
안히 허씨로 더브러 피에 올라나 물리고 물에 느러고 기낙가 세상영욕을 부운코치보나  
진짓물의 고식라 다만 년괴스 십에 일기 조식이 업서 부위상디 하야 홀홀 불락 하더니 일  
일은 모춘이라 허씨 사창을 열고 무료이 안젼스니 쌍쌍 춘연이 첨아에 새제 처비거 비리  
하니 허씨 망연이 비라 보고 장탄하되련디 만물이 성성 지리를 아나니 재업고 조모 지정  
을 모르는 재적거늘 날코 혼인 성은 평성이 처 초하야 더제비 만도 못하니 엇지가련 처아  
니 리오 조연 눈물이 옷깃을 적시더니 처시 밧그로 드러와 왈 부인은 엇지 심란이 안젼느  
뇨 금일 일괴 청랑하코 우리 초처에 산지 오래 되일 즉 옥련봉을 보지 못하얏스니 혼번 놀

玉蓮峰

九州

飛來峰

楊玄

許氏

洞庭湖  
呂洞賓

허올나 올적 혼회포를 풀미 엇더하뇨 허씨 대희하야 부부량인이 죽장을 쇠을고 산경을  
차자갈 서행화논이 진하코 척축은 만발하디 처 처덤무와 곳곳 봉성이 일년 춘광을 지축  
하니 후류슈를 희롱하야 손을 씨스며 후류슈음을 차자 각력을 쉬더니 석각이 준급하코 산  
경이 점험하거늘 허씨 암상에 안조며 천식이 막막하코 주한이 첨의하니 처시 쇼왈 부인  
은 종시 범골이라 상봉을 구경치 못하리다 하거쇼왈 첩은 실로 선분이 업거니와 군조  
의 괴석이 또 혼안서치 못하사 랑음비과 동영호하든 네 동변의 붓그린 바 폐실지니 암상  
에 쉬여다시 전진하면 도홀가하느이다 처시 대쇼하코 죽장을 들어 상봉을 그르쳐 왈 우  
리 임의 초처에 왔스니 잠간 쉬여 초산 경개를 편답하코 도라가리라 반향을 안젼다가 다  
시니 러부인과 중봉에 올라 봄에 산이 높고 골이 깊혀 창송고목은 스면에 옥어지고 괴암  
괴석은 좌우에라 열흔디스슴의 자최와 잣나비그림지사를 놀내야 섬홀분분하니 허  
씨 거름을 멈추고 송연왈 이곳이 그 장괴험하야 전진키 어려오니 첩은 곳하야 상봉을 보  
고저 아니하느이다 처시 미쇼하코 석경에 비회하더니 혼곳을 보라보니 일면 석벽이 반  
공에 소샷는 디 락장송이 벽상에 느러젼거늘 허씨 그르쳐 왈 더곳이 유슈하니 가보샤  
이다 처시 덤두하코 덤불을 헛치며 벽여보를 행하니 과연 창연 혼바회 놀기 슈십장이오  
전면에 무엇을 샅인 혼적 이잇거늘 허씨 손으로 익기를 씨스며 조세 숨혀보나 이에 관음  
보살의 진면이라 샅임이 공교하야 이목이 분명하코 등 리얼히여 괴고 혼뱃을 씨엿거늘  
허씨 그르쳐 왈 이부체 명산에잇서 인적이 부도하니 반드시 령험할지라 우리 이제 괴



도발원하야 지식을 구함이 었더하니 냇고 처식 본디 불사를 도화 아니하니 허씨의 정경  
을 이연 감동하야 죽장을 늦코 부워 공경 레비하고 은근이 구조로 축원하며 눈물을 금치  
못하더니 아이 오석양이 지산하고 명석이 출림하거늘 처식 부인의 손을 잇글고 오든길  
을 차자느려 올식 공산은 적적하고 송풍은 슬슬하디 석경에 죽장이 잠든 재를 놀내이고  
고적한 심스와 처량한 회포를 이기지 못하야 허씨 보보다 심중에 암축왈 우리 부워조  
쇼로 별로적악함이 업거늘 산간에 류락하야 승리도스조 처신의 무물하야 죽을바를 모  
르느니라 건대 신령호보살은 가련이 보샤 여성을 조비하쇼셔 축원을 못침애거름이  
임의 산문에 다다르느니라 휴슈승당하야 부부량인이 등하에 초연상되려니시야 장반  
에 허씨 일몽을 었으니 일위보살이 혼송이 씻을들고 옥련봉으로느려와 허씨를 주거늘  
놀나서니 늙은 향내오히려살아 지저아니하거늘 처사를 디하야 몽스를 고하디 처식미  
쇼왈 내또 혼금야에 이상한 몽죄잇스니 일도 금광이하늘로 조차느려와 일기미남지되  
야왈 나느런 상문창성이려니귀문에 일시인연으로의탁고져왔노라하고 품에 안키니  
서귀만 실하고 광치회황하야 놀나서 처니 었지심상 혼숨이리오 부워심중에 조부하디  
니과연그들브터더긔잇서거연 십삭에 일기귀남조를 성하니 초시옥련봉상에 선악이  
랑자하고 서귀집을 들너삼주야를 훑히지저아니하더라히 일골이 관옥조고미우에  
산천정기를 띄엿스며 량안에 일월지광이 어리여형슈혼조절과 줄일 혼풍치진짓선풍  
도골이오영웅군지라쳐스부워의여득만금혼은 말하지말고보는 재취양가서물이라

文昌星

武昌 武曲

沉香亭 西陽 洛陽

칭송치아니하리오난지일세에언어를형용하고이세에시비를분변하며삼세에린으  
를조차문의에늘서싸를그어글지되고돌을모화진법을일우더니맛춤익승이지내다  
가속시량구에대경왈초이문창무곡의정기를띄엿스니타일대귀하리로다설파에인  
혼불견하니처식더욱괴이히역여조의명을곳쳐창곡이라하니라창곡이린외와후  
원에올나뺏싸혼을시쳐식니르러보니여러히산뜻을씩거머리우에조득히썬조는  
디창곡은혼노그저안젼거늘곡절을무르니디왈쇼조는명쾌아니면취치아니하느이  
다쳐서쇼왈엇더하얏잇이명화인고창곡왈침향당화화의조는티도와셔호미화의  
담박흔절개로락양목단의부귀의상을검흔뜻이명쾌니이다쳐서웃고타일풍류에담  
연치아님을알너라오류세됨애능히글조를모하글귀를문드니쳐식그다지함을이셔  
하야조르치지아니하더니일일은야심후월석이만련하고성광이조요흔디창곡을안  
고썰에셔건이며우연이들을조르쳐왈네능히들을두고글을지을쇼나창곡이응구첩  
디하니그시에왈

大星明煌煌 큰별은밝아황황하고

小星明耿耿 작은별은밝아경경하고도다

悠悠一天月 유유한일련월이

四海懸如鏡 스히에거울조치달엿더라

처식대열하야허씨드려조랑왈초이그상이탁월하야아비의적막함을본밧지아니리



杜工部  
浣花溪  
宗文

韓信

太公、渭  
王、渭

畢、夔、  
稷、契、  
叔、召、虎

라 일일은 처시 나 시대를 들고 산하에 나 시 절을 시 창곡이 부친을 조차 구경하더니 처시  
희문왈 당나라 두공부는 완화에 나 시 절을 시 치조종문이 내옹을 비화바늘을 두드려  
나 시를 몬드니 그글에 하엿스되 치조고 침작 요귀라 하야 지금 서지 유전하니 또 하신인  
문시오 산거 품미라 네 능히 종문의 고침함을 비화네아 비의 흥을 도을 쇼나 창곡왈 종문  
의 필경 성취엇더 하니 잇가 처시 쇼왈 별로 탁월한 소업은 업느니라 창곡왈 문어 답초는  
한가흔 사람의 일이라 대장 위년 쇼고 예하고 려력 방강하야 스방을 경영하며 만민을 구  
제할지니 쇼슬하 나 시대로 산간에 오유하야 세월을 허송하리 잇고 초시 창곡이 년방륙  
세라 처시 깃침을 이기지 못하나 짐짓 할난 하야 그 쇼견을 보라 하고 우문왈 한신은 국스  
로 되가 빈하야 성하에 고기 잡고 래공은 현인이 나 문왕을 못맛나 위변에 나 시 절하니 부  
귀궁달은 인력으로 못할배라 어옹의 적막함을 지엇지 조롱하느뇨 창곡이 다시 제되  
왈 성패는 지런이나 경륜은 지인이라 쇼지 비록 불초하오나 맛당히 고기 적설과 방속쇼  
호를 효측하야 훈업이 천추에 빛날지니 엿지로 장의 응양함을 과필부의 결식함을 부러하  
리 잇가 처시 초언을 듯고 더욱 깃버하더라 광음이 출출하야 창곡의 년이 십륙이라 엄연  
성취하야 문장이 경인하고 지견이 출중하며 근련호성 과일취하 학문이 현인 군자의  
개제지풍이 잇고 영발호풍류와 호방호괴상은 영웅호걸의 흉대호본석을 겸하얏더라  
초시 신던지 즉위하시고 대사던하신 후 만방다스를 모화설과 취지하실시 창곡이 부  
친씨고 왈 남지 성세에 상호봉시로던디 스방을 씌은 뜻을 표함이 오고 서를 보으며 고스

班定遠

를 비호은 장초치 군력민하야 겸선련하음을 위함이라 쇼지 비록 불초하오나 년괴 십륙  
이라 구구히던원을 지회여 부모의 근심을 더함이 불가하하오나 원견대황성에 부거  
하야 공명을 구코저하나 이다 처시 그 뜻을 괴득이 녀어 다리고 님당에 드러가 허씨와 상  
의하니 허씨 위연 탄왈 우리 부귀는 도록 조세업서 혼란하다가 하늘이 도으샤 너를 어드  
니 장초육련봉하에 나 물키며 고기 낚가 평성을 떠나지 말고 여성을 지내이 죽을지라 엿  
지다 시 부귀를 희기하며 공명을 탐하야 리별을 경이 하하리 오또네나 히불과 이 팔이 오  
황성이여 괴서 삼천여리라 엿지 너를 참아고 단이 보내리 오창곡이 킁고 왈 쇼지 비록 미  
거하야 반정원의 두필하고 만리 봉후할지견이 업스오나 세월이여 류하고 시불가 실이  
라 초시를 늦천즉조물이 한가흔 날을 벌니 지아니 할가하나 이다 처시 개연 왈 남지 서검  
에 뜻을 품애 구구하스 정을 보지 못할지라 부인은 일시 리별을 과히 어려워하 지말지어  
다 부인이 할길 업서 창곡의 손을 잡고 왈 우리 부귀독로치아니 하얏스니 잠시 떠남을 엿  
지그다지 결연하리 오마내이 제너를 져긋히히 데로아느니 처음하를 떠나 작곡하  
니 신혼쇼석의 의려지정을 장초엿지하리 오설과에 초장함루함을 세듯지 못하니 창곡  
이 위로왈 쇼지 불초하오나 맛당히 몸을 삼가이 우치아니 할가하오나 존례를 보중하소  
서 허씨이에 협중에 늙은의 상과 씨여 진빈허를 팔아 형장을 준비할시 일필청려와 일기  
가 동으로 수 십량은 즈를 맛초아 탁일 등정할시 초사 부귀동의에 나와 보내며련련호빛  
과 신신호말이 춤아떠나지 못하니 처시 동즈를 명하야 형장을 지축하야 보내고 부인과



蘇州

도라오니라 초시창곡이의견이 비록속성하나 나히어리고 조모슬하를 처음떠나 때라  
귀를 두며 소매로 일골을 그리우고 무단흔 눈물이 영영하거늘 스스로 억제하고 황성을  
향하야 가니라 초시는 춘말하 초라 록음은 란만하고 방초는 처쳐흔 디 동풍의우는 자괴  
익수를 돕는 지라 양공지라 귀를 서서 이모라 산천도 구경하며 글귀도 생각하야 망운지  
회를 관역하더니 심여 일행하야 소주지경에 나르니 초시 소쥬대고 하야 도적이 스면에  
편만흔 지라 공조노 쥬행리를 조심하야 일즉 각덤을 차치우고 느진 후 등정하야 촌촌 전  
진하더니 일일은 길에 행인이 희소하고 쥬덤이 드물거늘 라귀를 모라 망망이 행을 서어  
언간에 일락서 산하고 황혼이 되오니 공조노 쥬황망하야 다만 압길만 바라보고 수리  
를 행하야 혼곳에 나르니 슈목이 참런하고 쥬령이 당전하엿거늘 공지하마하야 거러님  
을 서월석이 희미하고 산록에 목엽이 퍼져 위이 혼길 이 심분분 명치아니하니 동지라 귀  
를 압세우고 채썩을 들어라 귀가난 대로 행하며 공조는 슈후하더니 고기 밋히다 다라 동  
지출연대경하며 채썩을 싸에 더지고 멀니 물너서 거늘 공지 곡절을 무른대 동지덤불을  
그르쳐 왓적한 이만타하더니 더고 선 것이 엿지사름이 아니리오 공조 세세보니 고목이  
일즉 풍마우세하야 색은 등길이 월하에 섰는 지라 공지 웃고 동조의 경망을 취하며 다  
시 채썩과 곱비를 붓들녀 전진하야 불과 수십보를 행하더니 과연 오륙기적한 이 습속으  
로 돌출하며 각각서 리긋흔 갈날을 월하에 번득여 비린내 축비하니 동지 또대경하며 업  
더지거늘 적한 이바로 갈을 들고 양공조를 썰르라 흔대 공지 안석을 불변하고 래연이 날

江南

너 왓니 의다 평일량민으로 흥년을 당하야 괴한이 꺾박하니 행인의 지물을 탐함은 실로  
군조의 측연하야 하는 배라 내행조의 복을 앗기지아니려나와 사름을 해코져 함은 엿  
지불가치아니 리오 그적한 이 쇼왓세 사름이 지물을 성명보다 더 앗기는 니만 일즉이  
지아니 혼즉 엿지 빼아스리 오공지 쇼왓 군조는 허언이 업는 니녀의 잠간 물너 선즉의 복  
과 행구를 물수이 주리라 적한 이바야 흐로 갈을 거두고 물너서 거늘 공지 동조를 명하야  
행구를 가져 일일이 적한을 주고 님은 옷을 차례로 버슬서 괴석이 안연하야 조곰도 창황  
함이 업거늘 적한 이서로 보며 혀를 내여 두루더니 공지의 복을 다 벗고 다만 속에 님은 단  
의 일습을 머므러 왓 이 것은 갑이 만치아니하고 고적신으로 전진치 못할지니 용서하라 적  
한이 쾌히 허락하고 장탄왓 우리 일을 행흔 후로 담대 혼남조를 만히 보앗스나 이려 혼  
슈지는 처음보노라하고 의복행조를 거두어 습속으로 드러가더라 공조노 쥬다시 정신  
을 슈습하야 라귀를 쓰우고 령에는 러익덤을 차자갈시 때임의 삼스경이 지내엿더라 덤  
문을 두드리니 덤인이나와 보고대경왓 엿다신 공지 여츠심야에 적굴을 지나오시는  
노동지 봉적하든 말을 대강고하니 덤인이다시 놀나왓 츠처에 행인과 각이 전후에 죽은  
재무수하야 히곳진즉 님지 못하느니 금일 슈지의 노쥬는 복력이 무량하야 성명을 보전  
하섯도다 공지 왓내 일즉 드르니 소쥬는 강남중대 일웅 휘라하더니 관장이 업서도 적을  
금치 못하느니 나덤인 이령 쇼부답하고 일간 각실을 덩하야 일행을 안돈흔 후 덤인이 등화  
를 들고 드러와 봉적하든 설화를 다시 못하고 탄왓 관위 비록 멀지아니하나 조식쥬석에 침



익하야 정사를 뜻하지 아니하니 도적을 취라셔 금하니 오하며 일변히 지엄습을 보고 심중에  
 에민망하야 링반으로 되접하니 공조노 쥐밤을 지내고 날이 밝으매 전진할 방략이 업서  
 진퇴무척이라 덤인도 근심하더니 홀연 량기쇼년이 드러오거늘 보니 각각 슈중에 궁시  
 를 들고 호협호거동이 얼골에 나타나 일변 주인을 불너 술을 가져오라 하며 창곡노 주의  
 쇼슬이 안증을 보고 문왈 슈지노 어디로 가는 사람이뇨 공지왕 황성으로 가느이다 또 문  
 왈 슈지년과 몇치나 되뇨 답왈 십륙세니이다 쇼년 왈 나어린 슈지원로 형식이 엇지더리  
 단 초하노 공지왕 가빈하야 지구를 뵈초지 못함 종로상에 봉적하야 의복과 형조를 몰수  
 이 견탈하코 전진할 방략이 업서 그러하니이다 쇼년이 쇼왕대 장위 일인을 당치 못하야  
 더뵈치랑 패하니 슈지의 무용함을 알지라 슈지 임의 황성으로 갈진대 필연 부거하는 선  
 비라 능히 글을 아나뇨 공지왕 하도에 성장하야 문견이 고루하니 비록 약간 글을 비화  
 스나 어로를 불변하느이다 쇼년이 쇼왕 슈지노 과 겸치 말라 내호찌 잇서 슈지를 위하야  
 형조를 엇게 하리라 명일 소주조식 압강령에 대연을 비설하코 소항량 주문인 지스를 모  
 하 압강령시를 지어 장원하느자를 중상하느니 슈지 만일 시물의 지죄 잇거든 황성갈  
 형조를 엇지근심하리 오또호쇼년이 쇼왕 그중에 더욱 묘리 잇는 곡절이 잇스니 슈지 비  
 록년과 상관치 못하얏스나 동시 남지라 이러호 일을 알아 두라 강남 삼십륙 주기악이 항  
 주를 데일치고 항주 삼십륙교방중기녀에 유명호 재강남 홍이라가 무문장과 지조조식  
 이 강남에 독보하느니 조스슈령이 모음을 기우리지 안느 지엄스나 홍의 성품이 청고 표강

壓江亭、  
蘇杭

杭州

江南紅

黃義炳

하야 제 뜻에 아니든 즉 죽어도 허신치 아니하며 홍의나 하지금 십스세라 감히 갖가이호  
 재업더니 방금 소주조스는 승상 황의병의 아들이라 풍류 주석에 제화를 겸전하코 년과  
 삼십에 인물이 동탕하며 문장이 황성에 소문나고 풍치고인을 압두하느니 그 여히 강남 홍  
 을 달너 여좌우에 두고 저하야 명일 압강령노름도 전혀 흥을 위함이니 그중에 반드시 장  
 관이 잇슬 듯하느니 우리는 무뵈라 문인 좌석에 참여치 못하느니와 슈지는 구경함이 도홀  
 가하노라 공지쇼왕 나느본디 무지호느니라 이러호 승회에 엇지 참여하리오 량쇼년이  
 대쇼하고 금량을 열어 주치를 갑고나가거늘 공지심중에 생각하되 황조식 쇼령 명리로  
 주석을 일삼고 정사를 폐하느니 내곳하여디하코 저하야 아니하느니 제박익호 경계를 당하  
 야 진퇴무술하느니 쇼년의 말되로 일시 권도를 써 일장가 쇼스를 하보리라 하코 쇼스로  
 웃고 왕강남 우련하의 유명호 곳이라 문장과 물석이 반다시 구경할 만할 것이오 강남 홍  
 은 엇더호 사람이 완디 뜻과 안목이 더다 지놈호고 풍류 남조의 호방호 생각이 겸하야 밍  
 동하느니 덤인을 불너 문왈 여기사 압강령이 몇리나 되뇨 쇼덤인 왈 삼십리니이다 공조왕  
 이 제히 지엄서 전진치 못할지라 더라 귀를 덤중에 두고 우리노 주의 수일 쇼색을 하야 좀  
 이 엇더하뇨 덤인이 디왈 비록 심상호 형인이라 도형 지엄슨 즉 팔시치 못하려든하물며  
 공조의 비범하신 풍치를 흠양함이리오 수일 소스랄 반을 엇지어려워하리잇가 공지대  
 회하야노 쥐다시 일일을 덤중에 류속하코 익일에 덤인드려 압강령 구경감을 말하코 동  
 조를 다리고 압강령을 차자 갈서동으로 수십리를 행하느니 산천이 명려하코 물석이 변화



尹黃汝玉  
衡文

하야 처처의 경개 절승하더라 공지심중에 생각하되 압강당이 필연물가에 잇슬지라 내  
 물을싸라느려가보리라 하고 수리를도 행하니 강석이 광활하고 산세 더욱 아름답다와 벽  
 운은 취수에 어리엿고 빙구는 명사에 멀었스니 압강당이 불원함을알니라 또 수십보를  
 행하니 풍편에 스죽소리의 희이 들리며 과연 강을림호던지 언덕을덮혀 제되 평결하고  
 덩즈아래 거마와 사람이 물살듯하거늘 덩즈우를보라보니 취와 홍란은 반공에 조요하  
 고 황금대자로 현관을얏스되 압강당이라 하얏더라 텃텃호비단장은 풍편에느뵈쳐  
 상서구름이니러나고 몽몽한향연은 강상에 훗쳐 푸른안기영괴엿스니 딜당호 풍류  
 와청아호 소리루디를흔드느니라 양공지 동즈드려왈너는여괴서기드리라 하고 바로  
 덩하에다다라 소항제성을조차 덩상에오르니 덩지광이수빅간이오 금벽단청이궁사  
 극치하야 진짓강남루관중데일일너라 동편교의우에오사 홍포로반취하야 안존이는  
 소주즈스황여옥이오서편교의우에창안빅발로슈연이안존이는항주즈스윤형문이  
 라윤즈식위인이관홍하야 비록황즈스와년치부덕하고지괴불합하나 름읍지의로곤  
 청함을인연하야 오미라츠시소항문식덩상에그득하야 각각의관을선명이하고 용지  
 를아름답게하야 동서로분좌하니량부기녀빅여명이쥬취홍장으로좌우에버려아릿  
 싸온우음과아름다운안식을즈랑하며 풍정을회롱하거늘 양공지쥬슈량을홀려찬  
 찬이솟혀보니그중일위미인이불언불쇼하고 초연이안절스니옥즈흔두귀밋히운변  
 이슴사하고과리호얼골에춘광이초채하야링담호괴식은빙호츄월이정신을먹음엇

丹山  
滄海、紅  
娘

黃河、旗  
亭

王之渙

고충명호지절은창히명쥬광치를금초앗스니침향덩상의조으느히당화에비홀배아  
 니라 양공지심중에 생각하되내경국경성을고서에드렸더니이제참보앗도다이는반  
 드시심상호녀제아니라 쇼년의말하든바강남홍이로다하고제유를조차말석에안즈  
 니이때강남홍이또호츄과를믹믹히홀려모든문스를솟혀봄에방당호거동과용속호  
 말숨이모다구구룩룩호재라그중일기슈지말석에안절스니초초호의북과셔서호모  
 양이비록빈한호중적이나양양호거동과락락호괴석이일좌를압도하야단산치봉이  
 둥의무리에쳐하고창히신룡이풍우를지을듯하거늘홍랑이심중에놀나왈내청루에  
 처하야하다열인하얏스나엇지더호흔괴남즈를보앗스리오자조그거동을솟히며양  
 공지또호청신을쏘아은근이홍랑의괴석을보더니황즈식유성을덩상에모든후홍랑  
 을도라보며왈압강당은강남중가려호루관이오금일문인지식만좌하니랑은일곡청  
 가를날녀제공의흥치를도음이엇더하호홍랑이초연이며리를숙이고침음랑구에디  
 왈상공이이제풍치를빛내샤소식이가득호자리에엇지시속곡도로지리히귀앓음을  
 돕샤오리오맛당이제공의금슈문장을빌어황하빅운의청신호가곡으로괴덩갑을  
 효측할가하느이다제위일제히소리를아을나응락하니황즈식심중에불열하야싱각  
 하되오늘노름은풍류슈단으로홍랑을뵈이고저함이라니만일좌상에왕지환의지죄  
 잇슨즉엇지도로혀무식지아니리오그러나홍랑의뜻과제유의응락함이더러하니만  
 일저희호즉더욱용속호지라출하리내문저일슈시를지어좌중을압도하호홍으로하



曹子建

鍾、王

顏、柳

鮑參軍、  
庾開府

야곰나의지조를알게하리라이에흔연쇼알홍량의말이정해내뜻과합하니시령을받  
비느리라하며제유드려알각각일장치전을주노니압강덩시를지으라하니소항다시  
승귀를내야분분이붓을싸쳐지조를다들식황조시즉시몸을나러방에드러가므음이  
착급하야는쌀을씹흐리고좌불안석하니제위다글을지었다하니황조시무연히  
나와안지며쇼알네적조조건은칠보성시향엇거늘이제공은시령드른지반일에일슈  
시를성편하니엇지그리더디노츠시홍량이추파를그만히출녀양공조의거동을보니  
공지시령을듯고미쇼하며치전을피고조곰도싱각업시경각간에삼장을일위석상에  
더지거늘홍량이짐짓소항선비의글을취하야수십여장을보나도시진담이오출중훈  
재업거늘아미를썩그리며무료함이잇서양공조의더진치전을집어보니종왕의필법  
으로안류의례대를바다룡새비등하고풍운이니러나니안목이휘황하야다시그글을  
보니간안지조의괴려흔슈단으로성당제공의웅심흔지식잇고포참군의준일과유기  
부의청신을검하얏스니진짓슈중지월이오경중지해라기시에알

崔嵬亭子對江頭

높고높흔덩지강머리에디하니

畫棟珠欄壓碧流

그림기둥과구슬란잔이푸르게흐르는것을눌넋더라

白鷺慣聞鍾磬響

흰갈마키는종경소리를너이드러

斜陽點點落平洲

빗긴벚에점점이평호물가에떠러지더라

平沙籠月樹籠烟

평호모래에들이어리고나무에연피어리엿스니

藍田、青  
田

潘岳、韓、  
富、杜、長  
卿、梁園

積水空明一色天

싸인물이튀고붉아흐빛하늘이더라

好是君從平地望

도라이그디는평디를조차바라보라

畫中樓閣鏡中仙

그림가온디루각이오거울가온디선선일너라

江南八月聞香風

강남팔월에향피바람을드르니

萬朵蓮花一朵紅

일만줄기련꽃에흔줄기붉엇도다

莫打鴛鴦花下起

원앙을쳐서쫓아래니르키지말라

鴛鴦飛去折花叢

원앙은날아가고꽃떨기만썩거질가하노라

홍량이삼장시를보다가홀연취미를쓸고단순을열어머리에연진금봉차를싸쳐쥬호  
를치며알연이몸은목을굴너노래하니남연의검은옥을석상에바아는듯청연의외로  
온학이벽공에소리하는듯들보의티끌이느라나며몸은바람이삽삽하거늘일채선연  
변식하고소항문식상고하며누글인줄몰나하더라홍량이노래를듯천후치전을밧들  
어량조스에게올니니황조스는그장불쾌흔빋이잇고윤조스는지삼을흐며겨절칭찬  
하교일흔을밧비쳐쳐봄을지축하니츠시홍량이다시심두에싱각왈내비록조감이업  
스나평성의지괴를맞나일성을의탁고저하되반악의풍치가진자는한부의스업을괴  
필치못하며리두의문장을품은자는장경의방탕함이만흐니다나의소원이아니라의  
외에더량원말석의한미흔슈지엇지구슬을품어자리우의보비될줄알앗스리오이는  
하늘이홍량의씩업숨을불상이보샤영웅군조의개세풍류로써홍의소원을일워주심



燕趙

이라슈연이나슈지의형식이필연소항선비아니라만일성명을로출한면황조소의방  
 탕무퇴홀과중문소의위패불법함으로필경지조를식고하야고단한슈지를곤케하리  
 니엇지면요호리오호를생각하고량조소씩고왈첩이금일제공의글로호번노래함  
 은성회의환락함을돕고저함이오곳하여그죄조의우렬을보혀죄중으로도호무식  
 하게함이아니오니원컨대그일함은드러내지말고종일동락호후일모하거든써혀보  
 이요할가하느이다량조시혀락하니양공조는총명호남지라엇지홍량의뜻을모로리  
 오그괴경함을탄복하더라아오비반으로동락호시봉성룡관과연가조무는강련에  
 딜랑하고슈륙지품과팔진지미는좌석에림리하더라조시제기를명하야각각형비홀  
 시양공지본디과인호슈량이잇더니련하야소양치아니하고또호미취호괴식이잇거  
 늘호랑이그실슈홀가념려하야몸을니러제기와긋치형비홀을청하고초례로잔을돌  
 널시양공조에게밋쳐홍량이짐짓주비를업치고놀나는데하니양공조그뜻을알고거  
 짓대취하야술비를고스하더라술이다시십여비에지나니좌중이대취하야거죄착란  
 하고언시히패하더니소항선비중수인이니러나조소씩청왈성등이성회에참에하야  
 황잡홀글귀로홍량의조감을속이지못하얏스니원망호배업소나드르니금일홍량  
 의노래홀글이소항선비의지은배아니라하오니성등이글임자를차자다시호번비교  
 하야조웅을결단하고소항량주의설치를하고하느이다조시밋쳐답지못하야홍량  
 이심중에대경왈더무되지리취중에불을홀이이곳호니슈지필연화를밧을지라내구

원치아니호죽못하리라하고즉시슈중단관을돌녀좌에나아가왈소항문장이련하유  
 명함은세상이아는배라금일다소의분을호심은첩의시안이불명호죄라날이임의저  
 물고죄중이과취하얏거늘다시시문을의론함은불가하오니첩이맛당히수곡노래로  
 제공의취함을돕고글을보게쇼느지못호죄를속하리이다윤조시웃고도타하니홍량  
 이다시아미를쏟고단판을치며강남동삼장을부르니기가에왈

초장

錢塘

探蓮

十里清江

전당호

龍

은들에

취련하느

히들아

십리청강

비를

써여

물결이

잠든

龍

면풍

파

닐가

하노라

중장

청로새  
 밤비모라더  
 더가  
 는더  
 사  
 름아  
 히는  
 지고  
 길은  
 멀어  
 주  
 덩에  
 쉬지  
 마  
 소  
 네  
 뒤  
 에  
 금  
 하  
 바  
 람  
 급  
 호  
 니  
 오  
 너  
 저  
 즐  
 가  
 하  
 노  
 라

삼장

杭州城

大道青樓

碧桃花

항주성

도라

들제

대도

청루

몇곳

인고

문

압히

樓閣

江南

風月

分明

스

루

각

강

남

풍

일분명하다그곳에히불너나오거든련옥인가하소  
 이노래는홍량의창졸잔소작이라초장은조소와다식공조의지조를식고하야풍파닐



니란 말이 오종장은 공조드려 밤비도 망하란 말이 오종장은 홍랑이 데 집을 그르침이라  
 츠시조스와 소항다시오다대취하야 짓거리며 조세 못하나 양공조의 절인 혼 총명  
 으로 엇지 홍의 의스를 모르리오 심중에 황연대 각하야 죽시여 죽음을 말하고 몸을 니려  
 루에 내려가니라 아이 오일락서 산흠애 등축을 밟히고 장춧과 연코저하야 황조식 좌우  
 를 명하야 그 장원 혼글을 갖다 떼혀보니 이에 여남양 창곡이라 급히 창곡을 차즈니 대답  
 하는 재업고 좌위보왈아사 말석에 안젖든 슈지간 곳이 업는이다 황조식대로 왈엇더 혼  
 요마 쇼동이 우리 성회를 하시하야 고시를 외와 좌종을 속이고 본식이 탄로 할가하야 그  
 만히도 망함이니 엇지 당돌치아나리오 좌우를 호령하야 밤비차차 리하라하니 소항  
 다스 중무되 비성군작당하야 양비대담 왈우리 소항량쥬시쥬 풍류로던하에 유명하거  
 놀이 제벌어먹는히에 게룡락을바다 성회무식하니 이는 우리의 슈치라이히를괴  
 여히 잡아설치하리라하고 일제이 날어서니 아지 못게라 공조의 성명이 엇지 되고 하회  
 를 보라

대삼회

로 패항쥬에서 청루를 더 답하교  
 슈지간관에서 홍랑을 만나도다  
 老婆杭州答青樓  
 秀才客館遇紅娘  
 각설 츠시홍랑이 공지탈신하야 루에느림을보고 년쇼 혼공지 초초형식으로 비쥬의 곤

흔배되야 소루함이 잇슬가 녀려 홀뿐아니라 임의 내 집을 그르쳤스니 괴경 혼슈지 반드  
 시눈치를 채이고 차자갈지니 소미평심으로 열요 혼곳에 엇지하는고 모음이 조급하야  
 몸을 싸혀 뒤를 쓰르고 자하나 방략이 업더니 황조식대취하고 좌석이 요란하며 모든 선  
 비작란코저함을 보고 경왈더무되 비더긔치분을하니 공조의 고단직종이 엇지 종로에  
 곤욕을 당치아나리오 내맛당히 좌석을 안돈케하리라하고 황조식 좌왈첩이 당돌이  
 다스 문장을 쥬장하야 제공의 분분함이 이긔스오니 첩이 엇지 연연이 좌석에 안젖스리  
 오맛당히 물너가되 죄하리이다 황조식 초언을 듣고 생각되내금일노름은 전혀 홍랑  
 을 위함이 오문장을 교계함이 아니라 홍의 편성으로 피석함을 고집 혼죽이 엇지 살풍경  
 이아나리오 오성내 빛을 곳쳐 우음을 띄여다스를 위로 왈 창곡은 요마 쇼동이 라 엇지 죽히  
 교계하리오 맛당히 다시 좌석을 정돈하교 곳쳐시령을 내여 밤으로즐길가하노라 홍랑  
 이 초언을 듣고 더욱대경왈양공지무쥬공사에나를고되 홀뿐아니라 황조식의 방랑함  
 으로 내여괴서경야함이 온당치아나나다시 모면 할방략이 업스니 엇지면 도흐리오 반  
 향을 침음하다가 혼색을 생각하교 우음을 띄여 황조식씩다시 고왈 제공의 풍류관 홍하  
 심으로 천첩의 당돌 혼죄를 사하시고 밤으로 낮을니어질기 고저하시니 엇지 더욱 미석  
 아나리오 첩은 드르니 글을 지으매시령이 잇고 술을 마시매 쥬령이 잇는니 원컨대 쥬령  
 을 내여 좌상의 즐기심을 도를가하는이다 홍랑이 혼번기 구함애 황조식 엇지 거역하리  
 오크게 깃거 쥬령이 무어심을 무른대 홍랑이 쇼왈첩이 비록 총명이 부족하오나 아사 본



바소항다스의아름다운글귀를흥중에괴록하얏스오니맛당히차례로외을지라첩이  
일편을외오거든제공이흔술비술을스양치마르샤제공의주량과첩의총명을시험하  
야서로내기흔죽이엇지후일문주연석의미시되지아니하리오소항다스추언을듯고  
일제이무릅을치며칭찬하고즈스씩청왕등의추흔글귀홍량의소리에오르지못함  
을붓그리더니이제흔번외음을어든죽죽히무료함을씨슬가하느이다황조시허락하  
니홍량이웃고자리에나와아미를숙이고쇄옥성을늘녀다스의글을차례로외을시  
일조차착이엿거늘좌중이모다척척칭찬하며홍량의총명이괴절함을늘녀라미양  
흔번외온후홍량이제기를도라보아술비를저축하니츠시제위십분취하얏스나각각  
데글귀외음을영화로이알아잔을바드며외음을도로혀저축하니홍량이련하야오륙  
십편을외오니술이또흔오륙십비에지낸지라좌상이바야흐로진취하야혹동되셔위  
하며혹술을도르고잔을엿지르며차례로쓰러지거늘황조시또흔취안이몽롱하고말  
을일우지못하야왈홍량홍량총명총명하고인하야셔안을의지하야흔도불성하니츠  
시윤조스는임의주석을피하야방중에드러가고나지아니하거늘홍량이이에웃을곳  
침을말하고만히당조에는려항주창두를보고왈내이제비주잔에실슈하야본주조  
스씩득죄하니명징각이라이길로도망코저하노니네창두의복을잠잔빌니라하고  
머리에셔진금봉차를싸쳐창두를주며왈이물건이갑이천금이라너를주노니내이제  
항주로감을루설치말라창두임의동향인정이잇고또천금을엇으니대희과망하야머

리에쓴청건과몸에넙은청의와일쌍초혜를버서주거늘홍이즉시장속을긋친후황망  
이문을나항주길을브라보고십여리를행함에밤이임의삼스경이되얏더라월석이회  
미하야길을분변치못하느중이술이분분하야웃이임의저졌스니주덤을차자문을두  
드린대덤인이나와반야형식을피이히녀여못거늘홍이답왈나는항주창뒤러니급흔  
일로본부로가거니와이길로엇더흔슈지가아니하더뇨덤인왈우리덤문을다든지  
오래지안코나는술파는사름이라밤이깊도록길가에안졌스나슈지의지내감은보지  
못하엿노라홍이추언을듯고더욱창급하야덤인을망망이작별하고또십여리를행하  
야길에오는재잇슨죽슈지의형식을탐문하되다보지못하엿다하거늘홍이심신이황  
급하야전진할뜻이업서로변에안져싱각하되양공지의길로갓신즉필연맛나는재잇  
슬지니이제오는재다못보앗다하니이는소루함이잇서무뢰비에게잡히여곤욕을당  
함이라이는다나의뜻이라하고다시소주길을향하야오니라차설양공지당일여축함  
을평계하고루에나려동조를다리고다시덤중에도라와덤인을보고왈내길이밤부고  
형조를취치못하얏스니더라귀를덤중에두어귀로에차자가리라덤인이쇼왈비록일  
시라도주각지의잇거늘이러흔말씀은도리아니라공조는형리를보중하야과렴치말  
으쇼셔하야라귀를도로주거늘공지저삼스양하나듯지아니하느니라흔길업서후일  
을괴약하고덤인을작별하고동조로라귀를모라행하야심중에져져왈홍량이비록데  
집을당녕이가르치나내이제초형으로엇지츠조리오또황성으로바로가랴흔죽형지



업스니 엇지 가리오다 시성 각 왈 흥랑은 무쌍 혼국 식이라 스괴 공교 하야 이긋치 맛나니  
내 또 혼장부의 모습이라 엇지 그은 근 혼 뜻을 저 버리이오이 제다 만 차자가 봄이 올도다  
라 귀를 밧비 모라 향유로 향홀 식 밤이 갑고 형인 이 희 쇼 하야 길 이 희 미 하야 거늘 혼 주덤을  
차자 문을 두드리니 덤인 이 나와 형식을 저 세 보고 혼자 말로 왈 이 제야 오도다 하니 공저  
괴 문 왈 내 덤인 과 안면이 업거늘 엇지 이 제야 오음을 말하느뇨 덤인 왈 아사 일기 창뒤 급히  
향유로 가며 슈지의 형식을 탐문하더이다 공저 우문 왈 그 창뒤 무숨 일로 잔다 하더뇨 덤  
인 왈 그는 밋쳐 못지 못하얏스나 괴 식이 심히 급하더이다 공저 다시 못지 아니하교다 시  
라 귀를 모라 갈식 심중에 의혹 왈 흥랑의 노래에 주덤에 쉬지 말라 하얏스니 내 부절 업시  
들너와도 다 창두는 필연 황조스의 창뒤라 나를 뵈아 오이니 만일 상봉 혼죽 엇지 불 형치  
아니리 오수리를 형흙애 원춘의 계성이 악하며 동방의 서식이 의희 혼 종멸니 버라 보  
니 일기 창뒤 망망이 마조 오거늘 공저 허오대 오느재 필연 소주 창뒤라 내 종적을 보지 못  
하교 도라 오이니 내 잠시 피하리 하교 동조와 라 귀를 돌녀 길가 수풀에 은신하야 섰더  
니 그 창뒤 급히 거러지나 감애 공저 다시 라 귀를 채쳐 수심리를 형하니 하늘이 임의 뵈은  
지라 형인 드려 향유리 수를 무르니 불과 삼십여리라 하더라 혼곳에 니르니 산은 높고 물  
은 깊허그림 속 곳고 언덕의 버들과 물가의 루각이 경개 절승하야 큰 드리 공중에 무지키  
를 일췌고 열두 돌란 간 이 빙옥을 샅여 희 빛에 령롱하니 이는 소공 데라 넷적에 송나라 소  
동 패향 주조스로서 호의 물을 인도하야 긴 언덕을 무어 이 드리를 노앗스니 드리 우에 덩

蘇公堤  
蘇東坡  
西湖

조를 지어 철 팔월에련 화성 개 혼죽 제기를 다리고 슈중에 처련하며 노는 곳이라 공저 풍  
광에 뜻이 업서 바로 성문을 드러대로 조차 갈식 인물이 변화하교 시정이 열요하야 소  
주에 비 홀배아니라 청루 주셔로 변에 무수하야 곳곳이 뵈은 괴를 루전에 켜얏스니 공저  
라 귀를 모라 문전에 베틀도 화원 곳을 숨히 되보지 못하니 심중에 의혹하야 못고 저하나 청  
루를 차츰이 괴이 혼지라 이에로 변 주덤에 라 귀를 느려 쉬는데 하교 매 주하느로 파드려  
문 왈 더 길가에 괴 켜진 집은 다 누집 인고로 패 쇼 왈 공저 이 곳을 처음 보도다 더 괴 켜진 집  
은 다 청루라 우리 향 주 청루 모도 철 십여 체니 괴 방이 삼십륙이오 괴 방이 삼십륙이  
라 괴 교 방은 창네 잇고 괴 교 방은 기네 잇서 괴 외 방이 현 슈하니 이다 공저 쇼 왈 내 괴 셔를  
보니 창기는 일루라 무숨 분간이 잇스리로 패 왈 타 처에서는 분간이 업스나 우리 향 주  
는 창기의 분간이 절엄하니 창녀는 괴 교 방에 처하야 형인 과 괴이 지물 만 잇슨 죽보기 지  
이 하교 기녀라 하느것은 괴 교 방에 처하야 그 품 쉬네 충이라 데 일은 그 지조를 보고 데 이  
는 문장을 보고 데 삼은 가무를 보고 데 스는 조식을 보나니 형인 과 괴의 금벽이 산 곳흐나  
문장 지조의 취홀 배 업슨 죽보지 아니하교 궁 유한 스라도 지괴 상 합 혼죽 슈 절 불이 하느  
니 엇지 분간이 업스리 오공저 또 문 왈 연죽 괴 교 방이 어디 잇스며 기네 몇 처나 되느뇨로  
패 왈 이 길가에 괴 켜진 집은 다 괴 교 방 청루라 남문으로 드려 올 제도라 드느길 이 잇스니  
그 길로 느려가며 좌우에 잇는 집이 괴 교 방 청루니 괴 교 방 창녀는 수벽 여명이 오니 괴 방  
기녀는 거오 삼 십 여명이라 그 중 지조 문장과 가무 조식을 겸 혼기녀는 데 일 방에 처하교



지조문장만잇는자는데이방에쳐야각각품쉬절엄하니라공제우문왈지금데일방  
기네누구노로패왈강남홍이니항쥬공론이그지조문장파가무즈식이강남에독보흔  
다하느이다공제소왈파파는항쥬를너모포장치말라내일이충충하니다시보자하고  
라귀를라고남문길로다시나가보니파연도라드러가는길이잇거늘공제황연대각왈  
홍랑의노래에항쥬성문도라들제대도청루몇곳인가잇지제제치아니리오하고  
그길로조차느려가며좌우를휩쳐보니동귀정제하고루각이정치하야외교방에십비  
더하니청괴홍란이히빛에찬란하고약흔버들과괴이흔뜻이름들이버렸스니쳐쳐의  
스쥬소리와가가의노래곡되풍편에랑차하야인심을호탕하느니라공제완완이형하  
야삼십오청루를지나흔곳을보라보니장원이높고루다가려하야청계에명사를살아  
슈정호흔물을인도하야적은느리를홍예들어일헛스니공제석교를건너십여보를헛  
하니파연일슈벽도해우물우에뛰엇거늘라귀를느려문전에니르니문우에금즈로썩  
스되데일방이라하엿고동편에헌구뵤분장이버들스이에은은흔디수총루각이장두  
에표연이소삿스니분벽사창에쥬렴을드리엿고서호풍월네글즈를분명이써결엇는  
지라동즈로문을두느리니일기차환이룩의홍상으로나오거늘공제문왈네일홍이런  
옥이아니냐차환이소왈공제어디계시며쇼환의일홍을엇지괴역하시느니잇가공제  
왈네쥬인이집에잇느냐옥이디왈어제분부즈스를뵈서소쥬압강릉노름에가고업느  
이다공제왈네쥬인파일쥬천분이잇더니어느때에도라오리오옥왈금일회환하랴

느이다공제왈연쥬쥬인업는집에엇지머물니오이압쥬덤에가기드릴거시니쥬인이  
오시거든즉시통홀쇼나옥왈임의쥬인을차차오샤익덤에방황하심이불가하오니쇼  
환의방이비록쥬하오니그장중용하오니잠간쉬여기드리쇼셔공제성각하되청루는  
열요흔곳이라내이제슈지로두류함이님의이목에거리제지안으리오라귀를두며련  
옥을도라보아왈네쥬인이온후다시오리라하고갓가온쥬덤을가리여쉬며홍랑의몸  
을기느리더라차설홍랑이도로소쥬길로향하야을식발이부룻고느리춤하전진치못  
하느쥬던식이점점몹아오니비록복식이창뒤나용모를곰출길이업는지라올제지내  
든쥬덤을다시차차드러가니덤인이마져왈그디작야에지내가든창뒤아니냐홍랑왈  
밤에본사름을오히려괴역하니덤인의다정함을알니로다덤인왈그디슈제의형식을  
못더니파연계명시에그슈제의길로향쥬를향하야가더이다홍랑이추연을듯고차경  
차회하야주셰이문왈그슈제의형식이엇더하더뇨덤인왈밤이라십분분명치못하나  
일기동즈와일필청려로형상이초초하야님은의복이성양치못하고가는괴식이그장  
중요하나용모풍치심히비범하니아지못케라엇지하야상봉치못하뇨홍왕밤일이어  
긋나기괴이치아니하나그슈제덩녕이항쥬로가더뇨덤인왈덩녕이항쥬로가노라하  
며길을몰나저삼무르니초형인가하노라홍이덤인의말을일일히듯고심중에성각하  
되공제임의이길로갓스즉그면화홀을알배나내집을차자가쥬인이업스니서어홀이  
만을지라엇지하느고도로혀조급하야치신홀도리망연하더니홀연드름에문외에갈



도소리나며일위관원이 지나가거늘홍이문들으로엿보니별인이 아니라이에항쥬조  
스윤공이라윤공이그날압강당에서소쥬조스와제유성이대취하야요란함을보고심  
중에불열하얏든쥬조와홍랑의거체업스니소쥬조식잠을세야대호며좌우를호  
령하야부중관속을기우려두패에는화일패는황성길로가창곡을착력하고일패는항  
쥬길로가강남홍을착력하하니부중이진동하고소향다식취함을타괴운을부려괴  
제그장위패하거늘윤조식정식왈로뷔명공과련은을넘어승평무스지시에풍류명구  
를방면으로맛기시니벽성이안락하고부럽이한가하야시쥬성기로루관에우유함은  
장초우호로출티옥축의문치를찬양하고아래로강구연월에격양가를화답하야성은  
의만일을도모할지라이제압강당노름을소향일경이못드른재업거늘명공의데중함  
과로부의점지아니함으로일기창기에풍정을인연하야요란함을날화였고삼척동조  
의지조를식괴하야파거를지으니듯는재반드시말하되량쥬조식정스를패각하고쥬  
식을일삼아실레하얏다하리니엇지성은을보답하노배리오강남홍은로부의부기라  
불고하고도망함이필유곡절함이니종용처치함이더디지아닐것이오지어양창곡은  
타군선비라부거하거늘길에중적을금초고지조를빛내야문장으로희롱함이문인의상  
스여늘명공이이제관례를노아성군작당하야중로에작경함이엇지현연치아니리오  
로뷔불형이참석하거니진실로참괴하고다언필에괴식이엄숙하거늘황조식무연사례  
왈시성이쇼년에괴로밋쳐성각지못함이로소이다인하야좌우를물니치니다식대경

왈항쥬상공이일기창기를위하야중인의분노함을위로치아니시니성등이개연함을  
이괴지못하거니다윤조식정식왈스조의도리학업을힘쓰고지조를다가나보더나온  
자를원망치아니하고내도리를츠릴지라이제놈의일함을식괴하야조괴의거조를히  
망이하거니로뷔비록불민하나벽성을림훈죽법관이오선비를더훈죽스승이라만일교  
훈할듯지아니하거늘재잇슨죽맛당히가서회추리로선성데조의존엄함을알배하리라  
인하야형장을저축하며도라가라하거늘황조식만류하야부중에잠잔드러감을청하  
나윤조식썰치지못하야부중에드러가니황조식비쥬를나와은근이더점하고종용이  
다시고하야왈시성이무간하신후의를밋잡고우려청홀말함이잇스니선성은그당  
돌함을용셔하쇼셔윤조식쇼왈무슨일이잇는고황조식왈시성이나히삼십이넘지못  
하고일쳐일첩은남조의상식라던하물식을다보지못하얏스나이제강남홍호흔국식  
은거의천고소위오당세무쌍이라시성이홍을좌우에두지못하죽런성을보전치못할  
가하오니넣말에날넣스되식계상에무영웅렬식라하거늘말이금일이야밋을지라복망  
선성은홍을효유하야소원성취하게하쇼셔윤조식쇼왈속담에날은되빅만지중에상  
장의머리느취하려니와한사람의모음은빠앗기어렵다하니홍이비록천기나그직환  
심스를로뷔엇지하리오로뷔다만저희홀리는업스리라황조식쇼왈연즉시성이이세  
상사름이아닐가하거니다시성이일계잇스니몬저금은처단으로홍의모음을달리고  
오월오일전당호에경도회를츠려선성을청하고홍을부른죽아니오지못할지니시성



呂尙  
傳說、周  
文、殷宗

이승시하야조연묘리잇슬가하느이다윤조식웃고허락후황조소를작별하고항주  
로도도를식야심흔후죽덤을지나더니초시홍랑이치신무로하야덤중에안져다가반  
겨내다라거전에문후하니윤조식그복식이다름을보고의회하야문왈네엇더흔사름  
인고홍이티왈항주기녀강남홍이로소이다조식경왈네파연치아니하야무단이변복  
도망흔은무슴곡절인고홍이사례왈첩은드르니유나라녀상은팔십년곤고은나라  
부열은암하에담을싸하종적이곤궁하나범주를섬기지아니하고주문과은종을기드  
려허신하나지괴를불우흔죽지조를굽히지아니할모음은고인과다름이업거늘소주  
상공이그사름을천디하샤그모음을핍박하시니첩의도망흔은그괴들을봄이라불고  
흔죄는만스무석이로소이다조식묵연부답하고침음량구에문왈항귀일이머니엇지  
치신코저하느뇨홍이티왈첩이밤을드름에드리힘이진하고신괴불평하야전진홀방  
락이업느이다조식왈네을적듯든수리이뒤에공이오니다시드고감이엇더하뇨홍이  
샤례하고죽시창두의웃을버서주며수리우에올나조소의뒤를조차항주로갈식부중  
서지니르러조소의환관흔을보고물너오려흔죽조식왈소주조식오월오일에너를청  
하야전당호에경도회를하려하니알아두라홍이머리를숙이고디답지아니하느조식  
그뜻을알고죽시명하야물너가쉬라하니홍이문을나수리에오를식공조의쇼식을물  
나수리틈으로로변을엿보며집을향하야오더니남문압적은죽덤에일기동지로변에  
라귀를미고빛기거늘조세보니덤중에안존슈지이에양공제라홍이비록깃분을이괴

지못하나다시싱각흔애공조를다른좌석에충충상디하야비록용모문장을대강알앗  
스나언형과지조를알일이업스니장초빅년을의탁고저하며거연이허신치못홀지라  
내맛당히원도로써다시모음을시험하리라수리를모라바로지나집에너르니련옥이  
반겨내다라맛거늘홍랑이문왈기잔나를찾는재업더나옥왈아싸흔슈지랑조를차  
왔다가죽인업슴으로압죽덤에머드러랑조를기드르느이다홍왈손이온것을죽인이  
업서디접지못하느도리아니라네죽과를가지고죽덤에가슈지를디접하고여쳐쳐  
하라옥이웃고가니라초시공제죽덤에반일을무료이안져스니샤양이서산에넘어가  
고저녀연괴쳐쳐에너러나니바야흐로인간에티인난흔을씨드를지라홀연로변이들  
네며일위관원이지나가거늘것해사름드러무른죽본부조스라하니공제심중에싱각  
하되본부조식파연하고도라오니홍랑의도라음이또흔떨지아닐지라동조를지촉하  
야라귀를빛기며련옥의음을고디하더니일기차환이죽합과과립을가지고오거늘조  
세보니련옥이라공제깃거문왈네죽인이도라왔느나옥이티왈지금본죽조식환관하  
섯는데쇼식을드르니죽인이소주상공제잡히여오륙일후도라오마하니이다공제형  
파에괴식이락막하야묵연량구에왈더죽과조엇지흔것이뇨옥왈공제적막히안조샤  
심란하실지라박흔술과찬실과로죽인을디신하야가져오니이다공제그은근흔뜻을  
괴특이녀여일비를마시고초창흔모음을전당치못하야비죽에쫓이업서옥을보며왈  
내길이밧바머물기어려오나금일은일모하야등정치못하고직종이서어하니죽덤을



지시할라옥이응락왈쇼환의집이쥬인덕과멀지아니하고정쇄하고니공제비록벽일을류하셔도무방할가하는이다공제대회하야련옥을싸라그집에니르니과연극히종용하더라공제라귀와동조를련옥에게부탁하고일잔의실을명하야설시련옥이도라와랑에게일일히고하니홍랑이쇼왈석반을쳐려줄것이니루설치말라옥이응락하고석반을긋초아직덤에니르니공제먹기를다하고옥을향하야치샤왈일시과직을너모관되하니불안하고다옥이쇼왈쥬인이업서공조로추흔직실에거촌밥과나물국을잡수시게하오니정과긋지못하여이다인하야밤에잘쉬심을말하고도와홍드려고하니홍이쇼왈내공조를보니특록흔씩은선비아니라풍류남자의의상을씩엿스니금야는내슈단에드려고싱하리라련옥드려마만히닐너왈다시직실에가공조의동정을보고닐으라옥이웃고직실에니르려공조의자는방창밧게은신하야엿드르니적적히숨쉬는소라도업더니홀연등잔두는괴척이잇거늘옥이창궁글춤으로뜰으고보니공제정신업시벽을의지하야안져등잔을벗라보며초창흔괴척과우량흔모양이얼골에나타나고료료흔심스와암암흔정희미우에긋득하야홀연탄식하고침상에누으며자는듯하거늘옥이마만히도라오라하더니방중에다시신음하는소리나며공제문을열고나오거늘옥이즉시몸을돌너담모퉁이에피하야서서여어보니공제뜰에는려건일식밤이거의삼스경이나된지라반류신월이서산에거의지고찬이슬이공중에마득하니공제향월하야섯다가홀연글을 읊호니기시에왈

鐘殘漏促轉星河 쇠북은쇠잔하고루슈는지축하야별과은해글넛스니

客館孤燈屢剪花 괴의집에외로운등잔에꽃을여러번갈기도다

如何風撥浮雲起 엇지하야바람이 뜰구름을살어니르켜서

難向月宮見素娥 월궁을향하야회계집을보기어렵도다

련옥이본디충명흔녀자로홍을조차서쓰를히득흔고로심중에저세괴역하고도라와홍드려일장을력력치고하니홍랑이문왈공조의용모괴상이엇더하시더뇨옥이쇼왈어제는공조의용광이번화화려하샤동풍벽쇄출우를썸긋더니일야지잔에안석이초채하야상풍홍엽이이운벚을먹음은듯하니고하더니다홍랑이척왈네말이너모보리도다옥왈천비오히려어늘하야이로형용치못하노니공제침상에누으심애신음하는소리긋치지아니하고등잔을티는심애쳐량하심을보기어려오니만일몸이불평치아니신즉무슨회피잇슴인가하는이다홍이듯기를다하고심중에싱각하되조고로대장뷔녀저에게아니속는재업스나내너모조롱치못하리라옥을도라보아왈공제임의더긋치심란하실진대엇지위로치아니리오협중에흔별남북을내여노니엇지흔일인고하회를보라

데삼회

원앙침우에운우를쌔싸고  
연로당압히양류를싸다

鴛鴦枕上夢雲雨  
鵲鵲亭前折楊柳



巫山神女

楚襄王

潘岳

左太冲

曹子建

각설홍랑이남복을내어남고거울들어비최이며쇼왈넛적에무산신녀는위운위우  
 하야초양왕을속였더니이제강남홍은위녀위남하야양공조를희롱하니엇지우읍지  
 아니리오옥이쇼왈랑지남복을남으심애용모풍치양공조와흡스하나오히려얼골에  
 분흔적이잇서본식을곰초지못할가하느이다홍랑이쇼왈넛적에반악은남조로디얼  
 골이분바른것곳흐니세간에빅면셔성이만흔지라하물며밤에보는재엇지알니오량  
 인이가대쇼하며만히귀에말하교표연이문을나가니라차설양공지압강당에서  
 홍랑을잠잔본후스모하든정이임의오막에김헛스나다시맛남이조석에잇슬가하엿  
 더니호스다마하야아름다운괴약이느저가니려관고등에적적혼근심이홀홀불락하  
 야밤이김도룩잠을일우지못하교월하에건일며일슈시를지어 읊고초창방황하야찬  
 이슬에웃젓는줄을세듯지못하더니홀연셔편니웃에글외오는소리나거늘귀를기우  
 러저세히드르니남녀의성음은분잔치못하나글은좌대충의초은되라소리청하하야  
 뎡뎡이룰려에합하니츠평의도라가는기력이무리를찾는듯단산의외로운봉이짜을  
 부르는듯범인의음영함이아니라공제괴이히녀여조조간의락신부를외야화답하니  
 그소리동서상응하야동성은료량하야옥반에구슬을구을니고셔성은호방하야전장  
 에도창을올니는듯일창일화하야반향을슈창하더니홀연동성이낯치며문의에박탁  
 하느소리나거늘공제맛비나가보니일키슈지월하에섯스니옥안성모에정신이돌을  
 하교풍치발월하야진제인물이아니오옥경요당의적강선이라공제황망이마자왈밤

西川

이김고직관이적료하거늘엇지흔슈지선근이심방하느쇼슈지쇼왈데는셔천사람이  
 라산슈의벽이잇서소항이던하에유명함을듯고구경코져왔더니니웃직뎡에머므려  
 맛춤글을외오다가형의화답함을듯고월식을싸라반야한담으로피츄회를위로코  
 자왔느이다공제대희하야조직실로드러감을청하느이다공제웃고서로향월하야안  
 에드러가무엇하리오월하에안져말함이쇼홀가하느이다공제웃고서로향월하야안  
 즈니공조의총명함으로엇지반일상디흔홍랑의얼골을모르리오마는월식이쇼요하  
 나빅쥬와다르고또흔남복을남었스며괴석을못쳐일분슈습흔티되업스니공제심중  
 에정신이황홀하야만히싱각하되강남인물이던하의아름다와산천슈괴를응함에  
 남조도혹녀조조흔재만타하나엇지더곳치미남지잇느쇼하더니슈지문왈형은어디  
 로가논사람이쇼공제왈데는여람사람으로황성에부거하라가더니맛춤이곳에소천  
 이잇기왔다가쥬인이업슴으로직관에두류하노라슈지쇼왈남아의평슈상봉이이곳  
 치괴이하니부유갓흔인세에쉽지안인연분이라엇지쇼쇼상디하야월식을무료히보  
 내리오내랑중에슈엽청동이잇고문의에다려온동지잇스니일비춘쥬를형이스양치  
 아닐쇼나공제왈내비록태빅금성의쥬량이업스나형이능히하지장의금초환쥬홀풍  
 치잇스니일비쥬를엇지스양하리오슈지웃고금랑을열어쥬치를내여동조를불너술  
 을사오라하니슈유에비반이니르거늘량인이잔을들어마시기를다함애각각미취하  
 니슈지왈이곳치모친자최를표홀길이업스니심상한담이슈귀글만못홀지라내비록

太白金星  
賀知章